

2022년

추석 가정예배



“광야 속의 복음으로 교회를 세롭게 세상을 이롭게”
(시 68:7 & 민 33:2)

(예배 순서지는 개역개정성경 · 새찬송가들 사용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군포교회

15859 경기도 군포시 당산로 13

Homepage : www.gunpoch.org

☎ 031-452-1044 위임목사 김철웅

추석 가정 예배 순서

예배로부름 인도자

시 68:7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민 33:2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요 노정은 이러하니라

신앙 고백 사도신경 다 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되신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송 206장 주님의 귀한 말씀은 다 같이

주님의 귀한 말씀은

206

성경
 B. D. Barton, 1836
 보봉으로

Lamp of our feet, whereby we trace
 주의 말씀은 내 발에譬如요 내 길에 빛이시이다 (시 119:105)

귀한 말씀: 86888
 임석인, 1999

1.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2.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 먹이 고
 3.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기둥
 4. 하늘의 길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목마른 사막 길에서 샘물과 같도 다
 내 갈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 다
 주 백성 앞에 나타나 인도해 주시네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민속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우리 가족이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코로나 19의 광야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누리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광야 속의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라는 표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갔습니다. 말씀을 통해 주신 약속대로, 주님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우리의 삶과 가정과 더 나아가 이 나라가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믿음 안에서 화목을 누리는 우리 가정과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정에 항상 넘치기를 기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

시편 105편 39-42절
(구약 879쪽)

인도자

39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40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 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41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 같이 흘렀으니
42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
이로다

말씀 나눔

가족 나눔의 시간

다 같이

◎말씀 설명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성도들의 삶에 은혜를 주십니다.

①반석의 샘물 ②하늘의 만나 ③성막의 기둥은 하나님이 주시는 3가지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광야에서도 새로워지고 이로워질 수 있습니다.

◎말씀 나눔

1. 올 해 경험했던 광야의 상황은 무엇인가요?
2. 광야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대하고 있는 은혜는 무엇인가요?
3. 광야 중에 주시는 하나님의 3가지 은혜 가운데 내가 경험했던 은혜를 무엇인가요?

기 도 인도자

찬 송 559장 (통305장) 다 같이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있고

1.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 니
2.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를 사랑에 뭉쳐있 고
3.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 가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집 즐거운 동산이라
기쁨과 설움도 같이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한상에 둘러서 먹고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후렴

고마워 라 임마누 엘 에 수만 섬가는 우리 집

고마워 라 임마누 엘 복 되고 즐거운 하루하 루

마 침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다 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